

四時歌의 淵源과 范成大 <四時田園雜興>의 시간

盧垠靜*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四時歌의 기원과 전개
 - (1) 《詩經》
 - (2) 樂府類
 - (3) 古近體詩類
3. <四時田園雜興>의 시간
 - (1) 시간의 생명성
 - (2) 시간의 현재성
 - (3) 시간의 현실과 이상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 사대부 문인들은 漢詩의 형식으로서의 '四時歌'를 즐겨 창작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孟思誠의 <江湖四時歌>, 李珣의 <高山九曲歌>, 辛啓榮의 <田園四時歌>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계의 순환을 노래한 것으로, 춘하추동을 각각 한 수씩 노래한 연시조의 형식을 주로 채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인들은 중국의 詩詞를 '사시가'의 범주 안에서 選評하기도 했는데, 南義采는 《龜磻詩話》에서 '사시가'라는 유형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 誠信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고금의 시인들이 四時歌를 많이 지었는데, 陶淵明의 <水月雲松詞>가 그 鼻祖다. 李商隱이 지은 <燕臺四首>는 사시를 고루 갖추어 말했는데 무릇 난해하다. 蘇軾의 <四時詞>는 艷情을 표현하였다. 李商隱의 <燕臺> 역시 그러한 내용이다. 朱子 또한 <四時詞>를 지었다. <觀祝孝友畫卷, 爲賦六言一絕, 復以其句爲題, 作五言四咏>은 사시의 경물을 노래한 것으로 형식과 구상이 모두 아름다워 고금을 통틀어 아주 뛰어나다.¹⁾

남희채가 사시의 비조로 꼽은 <水月雲松詞>는 <四時>를 지칭하는 것인데, <四時>의 작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²⁾ 하지만 5언 절구 20자의 짧은 편폭 속에서 사계절의 다채로운 풍경과 감성을 두루두루 읊어내 압축적이면서도 형상성이 강한 시이다. <四時>는 조선 사대부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³⁾ 李瀾 같은 성리학자들은 이 시를 오행사상을 통해 분석하기도 했다.⁴⁾ 이런 사례를 통해 조선의 문인들이 사시를 사시의 행락을 노래하는 형식으로 단순하게 범주화 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근본 원리를 담은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시사 전통에서는 계절을 담은 작품은 많지만, 이러한 작품들을 '사시'라는 독립된 형식으로 분류하여 하나의 범주로 인식한 이들은 많지 않은 듯하

- 1) 《龜磻詩話》卷2(조종업 편, 《韓國詩話叢編》6, 1996, 태학사): 古今詩家, 多作四時歌, 而陶淵明水月雲松詞, 蓋其鼻祖也. 李義山作燕臺詩備言四時 而蓋難解. 東坡四時詞, 艷情也. 義山燕臺詩, 亦此意也. 朱文公又作四時詞, 題祝孝友畫卷, 言四時景物, 體裁俱美, 迥絕今古.
- 2) <四時>는 《陶淵明集》卷3에 수록이 되어있지만, 《彥周詩話》(송, 許頰)와 《說郛》(元末, 陶宗儀)에서는 顧愷之의 시로 도연명의 시집에 잘못 편입되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당나라 歐陽詢 등이 칙명을 받들어 편찬한 《藝文類聚》와, 명나라 李攀龍이 편찬한 《古今詩刪》, 명나라 馮惟訥이 편찬한 《古詩紀》에는 顧愷之의 <神情詩>로 수록되어있다. 하지만 袁行霈는 《陶淵明集箋注》(中華書局, 2003, 313쪽)에서 《藝文類聚》의 기록에서 “摘句”라고 명시한 注와 시 제목에 붙은 “此顧愷之<伸情詩>”라는 小注를 보면, <四時>가 고개지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설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작가의 진위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겨놓는다고 하였다.
- 3) 조선중기 崔演과 洪迪은 <四時>의 ‘春水’와 ‘夏雲’·‘秋月’·‘冬松’을 소재목으로 하여 칠언 율시 <사시사> 4수를 짓기도 하였다. 특히 최연의 <사시사>는 임금의 명령으로 지은 응제시여서 <四時>의 영향력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
- 4) 《星湖僿說》卷30(조종업 편, 《韓國詩話叢編》5, 1996, 태학사): 余讀陶淵明四時詞, 覺造化流行之氣像如目睹. 聖人必觀水, 而此又分爲四節看. 夫水火金木相與遞對, 其理難見, 著於物而方顯也.

다. 그런데 남희채는 도연명·이상은·소식·주희 등을 조선에서 보편화된 '사시가'의 전통 안에서 함께 거론하며, 중국 고전시가의 '사시가' 연원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고는 '사시가' 형식에 대한 조선시기의 논의에서 착안하여, 이 형식에 대한 중국 고전시에서의 연원을 살펴보면, '사시가'로서 范成大의 <四時田園雜興>의 창작성취에 주목하고자 한다.

남송대에 뭇지방의 다채로운 사계절 풍경과 풍속을 다룬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 60수는 양적인 면에서나 구성의 완성도 면에서 남희채가 논한 다른 시들과 비교했을 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⁵⁾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은 淳熙 10년(1183) 여름, 58세 된 작가가 건강상의 이유로 建康府 知府를 사직하고 고향에 있는 石湖⁶⁾ 별장으로 歸隱해서 건강을 회복한 후 지은 것이다. 작가의 대표작인 이 작품은 제목에서 보이듯 사계절의 농촌 풍경에 대해 느낀 감성을 노래한 것이다. 그것은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조선에서 보편화된 사시가 유형에 완전히 부합되는 연작시라고 할 수 있다. 범성대 <사시전원잡흥>에서 드러나는 시간 인식을 사시가의 범주 안에서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시경>과 악부시·고근체시로 이어지는 사시가 전통 안에서 <사시전원잡흥>를 다시금 자리매김해보고자 한다.

5) <구간시화>에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남희채가 범성대의 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범성대의 시집이 우리나라 도서목록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正祖 때였다. 정조 때 편찬된 <詩觀>의 송대부분에 范成大를 비롯한 17명의 송대 시인들이 수록되어 있으며(鞏本棟, <宋集傳播考論>, <論朝鮮時代의宋人詩文善本>, 中華書局, 2009, 104쪽), 정조 때 편찬된 <奎章總目>에 범성대의 <石湖集> 6본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李德懋(1741~1793)의 <靑莊館全書>에 <석호집>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것(앞의 책, <宋人撰述流傳高麗·朝鮮兩朝考略>, 209쪽)으로 보아, 범성대의 시는 늦어도 정조 때 이미 사대부들에게 읽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희채의 <구간시화>는 1832년에 편찬되었다. <구간시화>가 정조사후 32년 뒤에 편찬되었지만, 그가 관직에 오르지 않고 궁벽한 향리에서 시화집 집필에만 매진했다고 한다.(김희자, <구간시화 자료고>, <漢文學論集> 14, 1996, 461~462쪽 참고)

6) 범성대는 乾道7년(1170) 8월에 集英殿修撰 및 靜江府의 知府, 廣西經略安撫使에 제수되었는데, 임지로 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吳縣에서 서남쪽으로 12리 떨어진 곳에 별장을 짓고 '石湖'라고 이름 지었다. 自號 또한 별장의 이름에서 따 石湖居士라고 하였다. 淳熙8년(1181) 孝宗은 환 비단에 '石湖' 두 글자를 써서 범성대에게 하사하였고, 감격한 범성대는 <御書石湖二大字跋>을 짓고 石湖의 바위에 어필을 새겨 넣었다고 한다.

2. <四時田園雜興>의 기원과 전개

문학은 인간의 삶을 시간으로 다루는 작업이다. 소설이 시간의 배열을 통해 삶의 의미를 추적하며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진전하고 또 어떤 결말로 유도되는가를 묘사한다면, 시는 응축과 상징·비유를 통해 시간을 비틀어 인간의 삶을 노래한다.⁷⁾ 고대 중국의 문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학적 시간은 계절의 순환이다. 劉勰은 《文心調龍》 <物色>에서 다음과 같이 문학속의 계절을 언급했다.

봄 가을이 갈마드니 가을의 음기에 마음이 서글피지고 봄의 양기에 마음이 상쾌해진다. 물색이 달라짐에 마음도 이에 따라 요동친다. …… 이런 까닭에 새해가 되어 봄기운이 피어나면 즐거운 감정이 넘치고, 양기 왕성한 초여름이면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해진다. 하늘 높고 공기 맑아지는 가을이 되면 음울한 생각이 깊어만 가고, 진눈개비 끝없이 날리는 겨울이 되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엄숙한 생각을 갖게 된다. 계절 따라 각각의 풍물이 있고, 풍물 따라 또 갖가지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게 감정도 풍물 따라 변해가고 언어는 감정의 흐름에 따라 표현된다.⁸⁾

사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풍경이 펼쳐지면, 이에 따라 감정도 다채롭게 변해가고, 그러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문학으로 표현되었다. 이렇듯 사계의 순환에 따라 느끼는 감정을 노래한 시가 바로 四時歌⁹⁾이다.

7) 채수영, 《현실인식과 시적 상상력》(국학자료원, 1999), 175~176쪽 참고.

8) 春秋代序, 陰陽慘舒: 物色之動, 心亦搖焉. …… 是以獻歲發春, 悅豫之情暢; 滔滔孟夏, 鬱陶之心凝; 天高氣清, 陰沈之志遠; 霰雪無垠, 矜肅之慮深. 歲有其物, 物有其容; 情以物遷, 辭以情發. (詹鍈, 《文心調龍義證》, 上海古籍出版社, 1994. 1728~1732쪽)

9) 중국문학에는 四時歌의 개념이 없다. 본고에서는 《朝鮮中期 연시조의 研究》(김상진, 민속원, 1997, 43쪽)의 “사시가란 사계의 순환에 따라 촉발되는 시인의 감정을 노래한 일련의 시가”라는 개념 정의에 따라 사시가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1) 《詩經》

사시가의 연원은 《詩經》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¹⁰⁾ 가장 이른 사시가의 형태는 바로 《詩經》의 <四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四月>은 사계를 모두 다루지는 않았다. <四月>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계절감을 다룬 부분은 앞부분의 세 장만이다.

四月維夏, 사월에 시작된 여름,
六月徂暑. 유월엔 무더위지네.
先祖匪人, 조상님은 사람 아니던가.
胡寧忍予. 어찌 차마 나에게 이럴까?

秋日淒淒, 가을이라 쌀쌀해지니,
百卉具腓. 온갖 초목 다 시들어버리네.
亂離瘼矣, 난리에 병들어버렸으니,
爰其適歸.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冬日烈烈, 겨울날 추위 매섭고,
飄風發發. 회오리바람 쟁쟁 몰아치네.
民莫不穀, 백성들은 다 편안한데,
我獨何害. 나만 홀로 어찌 해를 당하는가?

사계절에서 봄이 빠진 채 여름 → 가을 → 겨울 순으로 계절의 기후와 풍경을 묘사하며, 난리로 고통 받는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였다. 이 뒤로 이어지는 다섯 장에서는 산의 나무와 샘물, 장강과 한수, 독수리와 솔개, 산과 습지의

10) 김신중은 《한국 사시가의 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에서 중국문학의 사시가 창작의 연원을 밝히면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節序感을 노래한 자연시가의 예로 <七月>과 <四月>을 함께 들었다. 그러나 <七月>은 사계절에 따른 감흥이 아니라, 달마다의 기후와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서술했기에 月令歌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七月>에는 3월을 제외한 나머지 열한 달이 언급되어있다. 4월 한 차례, 1월과 2월·5월·6월·11월 두 차례씩, 12월은 세 차례, 10월은 다섯 차례, 8월과 9월은 여섯 차례씩, 7월은 일곱 차례 나온다. 이렇듯 <七月>은 3월을 제외한 모든 달들의 기후와 기후에 따른 景物의 변화, 그리고 그 달에 행해지는 농사일 등을 묘사했기에 農家月令歌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식물들을 들어 난세를 살아가는 고단함을 노래했다. 비록 <사월>에는 사계절이 모두 구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 계절의 풍경을 배경으로 삶의 辛酸을 노래하였기에 사시가의 요소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2) 樂府類

《詩經》 <四月>의 뒤를 이어 나온 사시가는 《樂府詩集》에 실려 있는 민가 <子夜四時歌>와 沈約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四時白紵歌>로, 모두 악부의 체제로 되어있다. 이 외에는 모두 봄이나 가을 두 계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¹¹⁾

① <子夜四時歌>

<子夜四時歌>는 《樂府詩集》의 <清商曲辭·吳聲歌>에 실려 있는 민가로 모두 75수가 수록되어 있다. <子夜四時歌>는 판나라 子夜라는 여인이 만든 <子夜歌>를 본떠 후인들이 사계절의 行樂을 노래한 것이다. <子夜四時歌>는 <子夜歌>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담은 情歌로, 각 계절의 상이한 풍경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여성 화자의 절절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작가를 알 수 없는 南朝의 民歌인 <子夜四時歌>는 현재 《樂府詩集》에 실려 있는 春歌 20수, 夏歌 20수, 秋歌 18수, 冬歌 17수 등 5언 4구 75수가 남아 있다.¹²⁾ 계절에 따라 각각 풍경과 그에 따른 감정을 진솔하게 묘사하였는데, 이 <子夜四時歌>는 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며 晉·宋·齊 때의 민가들을 四時

11) 제목만 가지고 분석해보면 봄을 다룬 詩題는 <陽春曲>·<遊春曲二首>·<遊春辭二首>·<春日行> 등 15題이고, 가을을 다룬 詩題는 <秋思二首>·<秋夜長>·<秋夜曲二首>·<秋風> 등 6題이다. 여름과 겨울을 시제로 사용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12) 《樂府詩集》 卷44, <清商曲辭>1.

에 따라 구분해서 엮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시경》의 <사월>에 비해 더 완전한 사시가의 형태를 보여준다. <春歌> 한 수를 살펴보자.

<春歌>

春林花多媚. 봄 동산 꽃은 곱기도 고운데,
 春鳥意多哀. 봄 하늘 새는 너무 슬피 울고,
 春風復多情. 바람은 또 다정하게,
 吹我羅裳開. 내 비단 치마 불어 쫓히네.

1구·2구·3구에서 春林과 春鳥·春風을 통해 봄의 情景을 표현한 뒤, 마지막 구에서 이별한 후 바람에 날리는 치마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마음을 묘사했다. 이 시에서 풍경은 감성을 이끌어내어 독자를 동일한 감정에 이르게 한다. <子夜四時歌>는 대체로 전 1·2구 또는 1·2·3구에서 각 계절의 정경을 묘사하고, 후반 3·4구 또는 4구에 자신의 감정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시경》<사월>의 구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일부는 이와는 반대로 감정을 먼저 서술하고 계절의 情景을 읊조리기도 하였다.

<秋歌>

自從別歡來. 님과 이별한 뒤로부터,
 何日不思想. 어느 날인들 그리워하지 않았으리.
 常恐秋葉零. 언제나 두려워라 가을날 낙엽 떨어져,
 無復連條時. 다시는 가지에 붙지 않을 터이니.

정경과 감정이 도치되어 먼저 감정을 귀납적으로 토로하는데, 뒤에 나오는 풍경은 감정을 더 깊고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子夜四時歌>의 전통은 문인들에게까지 이어져, 漢末과 唐代의 많은 문인들은 이를 모방하여 다양한 <子夜四時歌>를 창작했다. 《樂府詩集》에는 晉·宋·齊의 민가인 <子夜四時歌> 75수와 이를 본뜬 梁武帝의 <子夜四時

歌> 8수, 王金珠의 <子夜四時歌> 8수, 郭元振의 <子夜四時歌> 6수,¹³⁾ 李白的 <子夜四時歌> 4수, 陸龜蒙의 <子夜四時歌> 4수가 수록되어 있다.¹⁴⁾

② <四時白紵歌>

《악부시집》에는 <子夜四時歌> 외에 四時를 다룬 시로 <四時白紵歌>가 실려 있는데, 이는 沈約이 梁武帝의 명령에 따라 吳나라의 舞曲인 <白紵舞歌>를 개작한 것이다. '白紵'는 오나라에서 생산되는 모시로 춤을 출 때 사용하는 모시포를 가리킨다. 그래서 <白紵舞歌>와 <四時白紵歌>는 모두 대체로 춤추는 이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룬다. 沈約과 隋煬帝·虞茂 모두 <四時白紵歌>를 지었는데, 虞茂의 시 아래에는 '和煬帝'라는 부제가 붙어있다.¹⁵⁾ 이중 사계를 모두 다룬 沈約의 <四時白紵歌>가 사시가로써의 형태가 가장 완벽하다.

전술한 사시가들과 沈約의 <四時白紵歌>의 차이점은 후렴구의 유무이다. 沈約의 <四時白紵歌> 다섯 수는 각각 8구의 7언시로 이루어져있는데, 8구중 후반 4구는 후렴구로서 5수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로써 이것이 직접 연주되었던 舞曲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는 또한 사계절을 자연주기에 따라 나는 <자야사시>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시가라고 할 수 있다. 즉 계절이 작가의 감성에 의해 세분된다는 것이다. <春白紵>·<夏白紵>·<秋白紵>·<冬白紵>·<夜白紵> 다섯 수는 각각 四時와 저녁(夜)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크게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늦겨울로 이어지는 계절의 진전을 보여준다.¹⁶⁾

13) <子夜四時歌>라고 하지만 수록되어 있는 것은 春歌 2수, 秋歌 2수, 冬歌 2수로 夏歌가 빠져 있다.

14) 四時歌는 아니지만 唐王翰의 <子夜春歌>, 崔國輔와 薛耀의 <子夜冬歌>도 8수, 郭元振의 <子夜四時歌> 6수, 李白的 <子夜四時歌> 4수, 陸龜蒙의 <子夜四時歌> 4수가 수록되어 있다.

15) 《樂府詩集》 권56, <舞曲歌辭> 5에 隋煬帝의 <四時白紵歌> 2수(<東宮春>·<江都夏>)와 虞茂의 <四時白紵歌> 2수(<江都夏>·<長安秋>)가 수록되어있다.

시간은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 두 가지가 있다. 1년이 12달 365일이라는 것과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 시간이고, 개인 각자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대적 시간이다. 시속의 여인들은 외로움과 그리움 때문에 감각적으로 겨울을 더 길고 지루하게 느낀다. 기다림의 간절함과 그로 인한 불면의 고통은 긴 겨울밤을 더더욱 긴 시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시인은 시간을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겨울 외에 늦겨울을 추가하여 감각적으로 시간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夜白紵>

秦箏齊瑟燕趙女,
一朝得意心相許.
明月如規方襲予,
夜長未央歌白紵.
翡翠群飛飛不息,
願在雲間長比翼.
佩服瑤草駐容色,
舜日堯年歡無極.

진나라 쟁 제나라 슬 연나라 조나라의 여인
하루아침에 마음 얻어 허락했지요.
컴퍼스로 그린 듯 한 밝은 달빛이 나를 엄습해오니,
끝없이 기나긴 밤에 백저가 부르네.
비취새 떼 쉬지 않고 날아가며,
오래도록 날개 나란히 구름사이 날기 원하네.
예쁜 용모에 아름다운 풀 차고 있으니,
요순시절처럼 즐거움 끝이 없네.

시 속에서 기나긴 밤과 밝은 달빛은 계절이 늦겨울임을 알려준다. 상단에서는 계절적 정경을 통해 감정을 묘사하고 후렴구에서는 영원히 함께 즐겁게 살자는 바람을 담았다.

(3) 古近體詩類

① 李商隱의 <燕臺四首>¹⁷⁾

이상은의 <燕臺四首>는 그가 天平軍 節度使인 令狐楚의 막부에서 생활하

16) 노드롭 프라이의 개념에 의하면 봄 — 아침, 여름 — 낮, 가을 — 저녁, 겨울 — 밤과 그 이미지를 맺을 수 있다. (김상진, 《조선중기 연시조의 연구》, 53쪽, 재인용)

17) 《全唐詩》 권341.

던 청년시기에 창작한 7언고시로 春·夏·秋·冬 네 수로 이루어져 있다. ‘燕臺’는 전국시대 燕나라의 昭王이 건축하여 천금을 놓아두고 현자를 초빙했다는 黃金臺를 말한다. 주로 ‘연대’가 등장하는 시들은 인재등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상은의 <연대>는 내용과 의미에 있어 연애시로 분류된다.¹⁸⁾ 네 수의 시는 각각 계절의 대표적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계절과 시간은 봄 — 아침, 여름 — 낮, 가을 — 저녁, 겨울 — 밤으로 그 이미지를 연계시킨다. 그러나 <연대>의 <춘>과 <하>는 시간적 배경이 불확실하며, 오히려 봄날의 안개(春煙)와 여름날의 비(雨)가 시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추>는 저녁에서 밤으로 진행되는 시간을, <동>은 밤에서 새벽으로 진행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秋>의 앞부분 네 구절을 살펴보자.

月 衡 天 天 宇 濕,	달빛 하늘에 퍼져 밤하늘도 축축이 젖어들더니,
涼 蟾 落 盡 疏 星 入.	차가운 달 지고 드문드문 별빛만 들어오네.
雲 屏 不 動 掩 孤 嘯,	운모 병풍만 아무 말 없이 외로움에 주름진 얼굴 가리고,
西 樓 一 夜 風 箏 急.	서쪽 누각엔 긴 밤 내내 풍경소리 급하게 울리네.

저녁에서 밤으로의 시간진행이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에서 묘사되었는데, 시간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가 시각과 청각을 사용한 정밀묘사를 통해 잘 표현되었다. 사계절의 대표적인 풍경을 형상화하면서도 계절과 시간을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사시가로서 계절에 따른 감성을 잘 담아냈다.

② 蘇軾의 <四時詞>¹⁹⁾

소식의 <사시사>는 7언 율시이며 4수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春雲’·‘垂

18) 윤석우, <이상은 초기시 연구>(<중국어문학논총> 61호, 2010.4), 338쪽 참고.

19) 《蘇軾詩集》 卷21(中華書局, 1982, 1092~1094쪽).

柳·‘新愁’·‘霜葉’으로 시작하며 봄·여름·가을·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봄을 노래한 제1수를 보자.

春雲陰陰雪欲落,	봄 구름 짙어 눈 내릴 듯하니,
東風和冷驚羅幕,	동풍의 찬 기운에 비단 휘장도 놀라네.
漸看遠水綠生漪,	멀리 봄 물 바라보니 푸른 물결 일어나고,
未放小桃紅入萼,	피지 않은 복숭아 꽃봉오리 불그레하네.
佳人瘦盡雪膚肌,	수척해지고 눈처럼 하얀 피부 지닌 아름다운 이,
眉斂春愁知爲誰.	그 미간에 머문 봄날 근심 누구 때문인가?
深院無人剪刀響,	인적 없는 깊은 안마당 울려 퍼지는 가위소리,
應將白紵作春衣.	응당 하얀 모시로 님의 봄옷 만들고 있으리.

겨울의 냉기가 가지지 않은 초봄에 님 그리다 수척해져버린 여인의 모습을 쓸쓸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1구에서 4구까지 전반부에서는 초봄의 풍경을 묘사하고, 이어 봄날 이별 후 외로움으로 여위어버린 여인과 찾아오는 이 없어 적막한 풍경을 담담하게 그렸다. 마지막 구절의 가위소리는 이별과 그리움으로 적막하기만 한 공간을 깨뜨리며 한 줄기 희망을 가져다준다.

소식의 <사시사>는 작가가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여인의 모습과 내면적 감정까지 서술하고 있다. 여인의 섬세한 감정과 여인의 사소한 일상사를 사계절의 풍경과 잘 어울리게 배치하여, 봄이면 봄대로 또 겨울이면 겨울대로 더 아련해지기만 하는 이별과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잘 담아내었다.

③ 朱熹의 <觀祝孝友畫卷, 爲賦六言一絕, 復以其句爲題, 作五言四咏>²⁰⁾

이 시는 주희가 그의 벗인 祝孝友²¹⁾의 그림을 보고 6언 절구 한 수를 짓고, 다시 起承轉結 각 구를 제목삼아 5언 절구 4수로 지어낸 것이다. 우선 6언 절구를 살펴보자.

20) 《朱子大典》第20冊(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2. 357쪽)

21) 남송의 유명한 서화가로 원명은 祝次仲이며 자가 孝友이다. 산수화에 뛰어났고 草書에 능했다고 한다.

春曉雲山煙樹，	봄 날 새벽 산에는 구름 가득 나무엔 안개 서렸고,
炎天雨壑風林，	뜨거운 여름 골짜기에 내린 비로 숲에는 바람 깃드네.
江閣月臨靜夜，	강가 누각에 달 뜨니 고요한 밤 찾아오고,
溪橋雪擁寒襟，	시냇가 다리 눈 덮히니 차가운 옷깃 여미네.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6언시는 그림에 대한 제화시로, 기승전결이 각각 봄·여름·가을·겨울의 풍경을 읊고 있다. 이러한 체재는 <四時>와 같지만, 6언시라 시인들의 계절감이 더 풍부하다. 예를 들면 봄의 이미지는 봄날 새벽(春曉)·구름 낀 산(雲山)·안개에 쌓인 나무(煙樹)이고, 여름의 이미지는 뜨거운 날씨(炎天)·비 오는 계곡(雨壑)·바람 부는 숲(風林)이다. 가을의 이미지는 강가 누각의 달(江閣月)·조용한 밤(靜夜)이며, 겨울의 이미지는 눈 덮인 다리(溪橋雪)·차가운 옷깃(寒襟)인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좀 더 자세히 형상화 한 것이 5언 절구 4수이다. 5언시 중 여름 부분을 살펴보자.

炎蒸無處逃, 짐통 같은 더위 피할 곳 없는데,
 亭午轉歛斂, 정오가 되니 뜨거운 기운이 감도네.
 萬壑一奔傾, 깊은 산골짜기로 세차게 비 내리더니,
 千林共蕭瑟, 온 숲이 모두 소슬해졌네.

6언시 두 번째 구의 炎天 — 雨壑 — 風林的 형상성이 無處逃 / 轉歛斂 — 一奔傾 — 共蕭瑟로 좀 더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앞선 사시가들에 비해 정경의 형상성이 더 두드러지는데, 반대로 감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이 시가 실제 계절에 따른 감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감상을 담은 제화시기 때문이다.

중희의 또 다른 시 <觀劉氏山館壁間所畫四時景物, 各有深趣, 因爲六言一絕, 復以其句爲題, 作五言四咏> 또한 위의 시와 마찬가지로 6언 절구의 제화시와 이를 풀이한 5언 절구 4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시 모두 사시가 형태의 제화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고대 시가사에서 '사시가'를 독립된 형식으로 분류하여 하나의 범주로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4계절을 다룬 시들은 《시경》 이후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그러한 전통위에서 계절적 소재와 주제를 잘 활용하면서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품으로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 60수를 꼽을 수 있다.

3. <四時田園雜興>의 시간

범성대는 <사시전원잡흥> 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창작동기를 밝혔다.

淳熙 丙午年(순희 13년, 1186년) 병이 조금 차도가 있어, 다시 石湖의 옛 집에 돌아와 들판에서 접한 모든 일들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시 한 수씩 썼는데, 연말이 되니 60편의 시가 되었다. 그래서 <四時田園雜興>이라 이름했다.²²⁾

淳熙 10년 4월부터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3년 남짓 병으로 고생하면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낸 그는,²³⁾ 건강이 회복되자 찾아온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고향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풍경을 노래하고, 직접 농사도 지었다.²⁴⁾ <사시전원잡흥> 60수는 그가 사람들을 만나고 햇빛과 강, 푸른 하늘과 들판,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엮어낸 것이다. 이 연작시는 그가 1년 동안 돌아본 석호 부근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다.

문학에 있어서의 시간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문학적 소재로서 인생이 갖는 경험적 시간과 그것이 재구성되어 작품으로 처리된 작품상의 시간, 작가가 작품을 쓰는 바로 그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시간이다. 작가심리학적 면에

22) 《范石湖集》卷27(上海古籍出版社, 2006), 372쪽: 淳熙丙午, 沉病少紓, 復至石湖舊隱, 野外即事, 輒書一絕, 終歲得六十篇, 號四時田園雜興.

23) <丙午人日立春, 屈指癸卯孟夏晦得疾, 恰十日矣. 戲書> (《石湖詩集》卷26): 百年能有幾春光, 只合都將付醉鄉. 衰病豁除千日外, 尚餘三萬五千場.

24) 于北山, 《范成大年譜》(上海古籍出版社, 1987), 342쪽 참고.

서 작가가 작품을 쓰게 되는 시간은 우리가 평범하게 경험하는 일상적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작가로 하여금 창작으로 유도하게끔 만드는 어떤 감동적인 심리 상태 속의 시간이다.²⁵⁾ 이것은 범성대의 시간인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범성대는 <사시전원잡흥>에서 1년을 봄(春日)-늦봄(晚春)-여름(夏日)-가을(秋日)-겨울(冬日)로 나누었다. 이는 앞서 沈約의 <四時白紵歌>을 논하면서 언급했듯이 시간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 인식은 범성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시적 대상이 된 전원이라는 공간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은 작가의 개인적 역사와 이 시를 창작한 61세 때의 시간,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江南水鄉 石湖라는 공간을 근간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사시전원잡흥>에 스며든 범성대의 사계절에 대한 감성을 시간의 생명성과 시간의 현재성, 시간의 현실과 이상이라는 세 개의 범주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시간의 생명성

동양에서 일년은 일반적으로 '사시'로 통칭되며, 음력 1·2·3월을 봄, 4·5·6월을 여름, 7·8·9월을 가을, 10·11·12월을 겨울로 나눈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와 달리, 감성적으로는 봄과 가을이 여름이나 겨울에 비해 짧다고 느끼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것은 시간의 밀도 때문이다. 희색빛 세상이 화려한 봄꽃으로 단장하고, 얼어붙은 대지가 숨을 쉬면서 온갖 새싹을 움틔우는 봄은 그 왕성한 활기로 인해 오히려 순식간에 가버린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범성대는 <사시전원잡흥>에서 1년의 1/4에 해당하는 봄을 春日과 晚春 두 단계로 나눈다. 일년의 1/4에 해당하는

25) 오세영, 《문학연구방법론》(이우출판사, 1988), 56쪽 참고.

봄을 2/5로 인식한 것이다. 이는 모든 풍경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시간의 밀도가 높은 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랜 병석에서 일어난 그에게 전원풍경에 깃든 생명감은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

柳花深巷午鷄聲,
桑葉尖新綠未成。
坐睡覺來無一事,
滿窗晴日看蠶生。

버들개지 훑날리는 깊숙한 골목엔 낮 닭의 울음소리,
갓 돋은 뽕나무 잎은 아직 일러 푸르지 않고,
앉은 채로 졸다 문득 깨어보니 아무 일도 없iera.
창 가득 맑은 햇살 속에 누에 태어나나 살펴보네.

— <春日田園雜興> 其1

14세에 큰 병으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도²⁶⁾ 잦은 병치레로 고생했던 범성대에게 고향인 석호의 전원은 육체와 영원의 휴식처가 돼 주었다. 그는 이 시절을 돌이켜 보며, “헤아려보면 13년간 11곳에서 증추절을 보냈으니 떠돌이라 할만도 하다. 하지만 늙은 몸의 병을 구실 삼아 물러날 것을 청하여 만약 황상께서 윤택하신다면 나는 전원으로 돌아가 달빛 아래 호미 메고 이생을 마칠 것이다”²⁷⁾고 말한다. 범성대가 선택한 생의 종착역은 석호의 전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29세부터 거의 30년간 계속되었던 관리생활과 작별하고 전원으로 돌아왔지만, 오랜 병 때문에 새로 봄이 왔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알에서 깨어나는 누에를 살펴보며 그는 단단한 알에서 깨어나는 누에처럼 자신도 병을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바람이 이루어져 초목이 싹이 트듯 삶에 활기가 움트고, 전원엔 온갖 꽃이 피고 채마밭에도 새싹이 가득하고 대나무 죽순도 움튼다.²⁸⁾ 시골벽적인 春社日에 들러오는 천둥 같은 북소리에도 흥겹고, 아이들의 鬪草놀이에도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을 봐도 즐겁다.²⁹⁾ 한식날에 꽃단장하고 유람 떠나는 여

26) 《范石湖集》卷34 <問天醫賦·序>: 余幼而氣弱, 常慕同隊兒之強壯. 年十四年, 大病瀕死.

27) <吳船錄>下(《范成大筆記六種》, 中華書局, 2004, 226쪽): 通計十三年間, 十一處見中秋, 亦可以謂之游子. 然餘以病丐骸骨, 儻恩旨垂允, 自此歸田園, 帶月荷鋤, 得遂此生矣.

28) <春日田園雜興>其2: 土膏欲動雨頻催, 萬草千花一餉開. 舍後荒畦猶綠秀, 鄰家鞭笞過牆來.

29) <春日田園雜興>其5: 社下燒錢鼓似雷, 日斜扶得醉翁回. 青枝滿地花狼藉, 知是兒孫鬪草來.

인들의 모습에도 흐뭇해하며,³⁰⁾ 봄날의 활기에 흥이 나 직접 나물을 뜯으러 나가기도 하고,³¹⁾ 또 봄나물 잘 씻어 다듬어 장에 내다팔고 소금이랑 술도 사서 돌아온다.³²⁾ 작은 대바구니에 반쯤 붉어진 복분자 따 담아 지팡이 끝에 걸고 돌아오는 모습에 아이들이 웃는데 그 웃음소리마저 정겹다.³³⁾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다시 활기를 찾아준 봄이 가버려 매우 아쉽다.

穀雨如絲復似塵，
煮瓶浮蠟正嘗新。
牧丹破萼櫻桃熟，
未許飛花減却春。

穀雨에 내린 이슬비 가늘어 다시 먼지 이는 듯 하고,
술병 데우니 거품 뜨지만 정말 신선하네.
모란이 꽃망울 터뜨리고 앵두 붉게 익어 가는데,
흘날리는 꽃잎에 봄 사그러지는 것 윤택할 수 없어라.

— <晚春田園雜興> 其9

봄이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 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윤택할 수 없다고 허세를 부려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봄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는 것은 작가 자신이 잘 알고 있다. 피폐해진 심신과 자아가 전원 속에서 치유되어 제 자리를 찾아갔기에, 봄이 너무 소중한데 두고두고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렇듯 그는 전원의 봄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오랜 관직생활에 무더진 감성을 회복하였으므로, 그에게 시간은 무한한 에너지를 내포한 생명의 근원이었다.

(2) 시간의 현재성

인간의 생활은 눈에 보이는 구체의 연장이고 시간은 보이지 않는 현상만의 개념이다.³⁴⁾ 그런데 인간이 의식 활동을 한다 할 때, 그것은 항상 시간과 깊은

30) <春日田園雜興> 其7: 寒食花枝插滿頭, 藕裙青袂幾片舟, 一年一度遊山寺, 不上靈巖即虎丘.

31) <晚春田園雜興> 其1: 紫青萼菜卷荷香, 玉雪芹芽拔薤長, 自擷溪毛充晚供, 短篷風雨宿橫塘.

32) <春日田園雜興> 其12: 桑下春蔬綠滿畦, 蕊心青嫩芥羹肥, 溪頭洗擇店頭賣, 日暮裹鹽沽酒歸.

33) <晚春田園雜興> 其8: 茅針香軟漸包茸, 蓬蘽甘酸半染紅, 采采歸來兒女笑, 杖頭高挂小筠籠.

34) 채수영, 《현실인식과 시적 상상력》(국학자료원, 1999), 176쪽 참조.

관련을 갖는다. 인간의 모든 지각 활동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공간과 시간은 지각의 형식이며,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된다. 문학이 인간 존재에 대한 해명이라거나 삶에 대한 탐구이며 진리를 인식하는 행위라고 할 때, 그것은 시간에 대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가 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련을 가진다.³⁵⁾

시들은 시 안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고가며 情景를 묘사한다. 그런데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은 전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철저히 현재라는 자연의 일방적 시간을 쫓아가며 정경을 묘사한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미래에 대한 상상은 거의 없다.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더라도, 모두 현재에 기반 한, 즉 그해 농사에 대한 예측, 또는 농사결과 등등에 한정될 뿐이다.

今年不欠秧田水,	금년에는 못자리 물이 부족하지 않을 듯.	— <春日田園雜興> 其11
今年田稻十分秋.	올 해 벼농사는 매우 풍성하리.	— <晚春田園雜興> 其4
明年添種越城東.	내년엔 월성 동쪽까지 파종할 수 있으리.	— <冬日田園雜興> 其5

그는 전원이라는 공간을 철저히 현재를 살아가는 공간으로 인식했다. 일년 춘하추동이라는 자연 순환 속에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노동과 땀의 가치가 구현되는 공간이다. 시간을 순간의 집적체³⁶⁾라고 한다면 시간은 순간의 연속이며 존재하는 것은 순간뿐이다. 전원에는 안온한 안식이 있고 생명을 이루어 주는 양식이 있고 고단함을 편하게 누일 공간이 있다. 전원에 대한 깨달음은 상징이나 비유의 시적 표현을 통해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그 풍경 속에서 다만 현재에 '있음'을 강하게 인식시켰다. 범성대에게 있어 전원에서의 시간은 지금 대상과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을 의미했다.

35) 최병우, <문학 장르와 시간의식에 관한 시론>, (《한국어와 문화》 제2집, 2007), 149쪽 참조.

36) 김규영,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시간론》, 서강대출판부, 1979), 94~96쪽 참조.

시 전체를 살펴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今年’(4번), ‘近來’(1번), ‘今歲’(1번), ‘明年’(1번) 등 네 개 정도이다. 이처럼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역으로 그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를 가장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생생함은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와 개구리 울음소리,³⁷⁾ 빗소리 마냥 소란스러운 물레 돌리는 소리³⁸⁾와 같은 청각적 묘사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다채로운 음식에 대한 시각적 묘사와 현재의 다양한 풍속에 대한 기술로 이어지는데, ‘水鄉’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석호에서 생산되는 복어(河魷)·조기(石首)³⁹⁾·농어(四腮鱸)⁴⁰⁾ 등의 생선과 생선회(鱠魚)에서부터 저민 橙子 절임(棗薑)·귤(橘)⁴¹⁾·야생배추(踏地菘)·꿀에 절인 연근(蜜藕)⁴²⁾·토란·밤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세밀한 묘사는 현재라는 일상생활을 詩化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楸櫨無煙雪夜長,
地爐煨酒煖如湯。
莫嗔老婦無盤釘,
笑指灰中栗栗香。

눈 내리는 긴 밤 장작은 연기 없이 활활 타오르고,
아궁이에 올려놓은 술 뜨겁게 데워지네.
소반 가득 술안주 없다 늙은 마누라 나무라지 마오,
웃으며 재 속 향긋하게 익어 가는 토란과 밤 가리키네.

— <冬日田園雜興> 其8

송대에 들어 詩材로 다루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었던 많은 사물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관찰되어 시 속에 수용되었고, 이는 시를 전시기보다 일상생활과 근접한 것으로 만들었다.⁴³⁾ 현재성을 중시한 범성대 또한 평범한 일상생활 속의 풍경과 사물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과감히 시의 소재로 삼았는데, 이는 그의 시속에서 시간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7) <夏日田園雜興> 其12: 蝸蟻千萬沸斜陽, 蛙黽無邊聒夜長. 不把癡聾相對治, 夢魂爭得到葵涼.

38) <夏日田園雜興> 其5: 百沸燥湯雪湧波, 縲車嘈噴雨鳴蓑. 桑姑盆手交相賀, 綿繭無多絲繭多.

39) <晚春田園雜興> 其11: 海雨江風浪作堆, 時新魚菜逐春回. 荻芽抽筍河魷上, 棟子開花石首來.

40) <秋日田園雜興> 其11: 細搗棗薑買鱠魚, 西風吹上四腮鱸. 雪鬆酥膩千絲縷, 除卻松江到處無.

41) <秋日田園雜興> 其12: 新霜徹曉報秋深, 染盡青林作緜林. 惟有橘園風景異, 碧叢叢裏萬黃金.

42) <冬日田園雜興> 其7: 撥雪挑來踏地菘, 味如蜜藕更肥醲. 朱門肉食無風味, 只作尋常菜把供.

43) 吉川幸次郎 著·鄭清茂 譯, 《宋詩概說》(聯經出版事業公司, 1977), 18쪽 참조.

(3) 시간의 현실과 이상

범성대는 淳熙 3년(1176) 四川置制使로 있을 때 孝宗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공고해야만 나라가 편안하기에, 제왕의 흥성함에 있어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仁政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요역을 줄이시고, 세금을 줄이시며, 요역과 세금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시어 백성들을 편안케 하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의 힘이 남음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셔서 천자의 덕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짐을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비록 하늘이 이러한 변화를 돕지 않아, 오랑캐와 도적들이 횡행하고 수해·한재가 생긴다하여도, 어찌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흔들려 경거망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⁴⁴⁾

범성대는 仁政과 민본사상을 기본 정치이상으로 삼았는데, 이 상소문에서 仁政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역감량과 세금면제를 언급했다. 이는 역으로 당시 부역제도와 조세제도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범성대는 백성들에 대한 애민사상은 이러한 상소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관리가 된 후 徽州司戶參軍으로 6~7년간 徽州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직접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고 당시 농민들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樂壤曲>·<繰絲行>·<田家留客行>·<催租行> 등의 시를 창작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乾道4년(1168) 7월에 處州 知府로 부임하여, 짧은 임기동안⁴⁵⁾ 그 지역 농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낡은 通濟堰을 보수하고, 《通濟堰記》를 편찬하며 《堰規》 20條를 제정하여 돌에 새겼다. 이 법규는 중국 農田水利史

44) 《歷代名臣奏議》 卷108, <論邦本疏>: 臣聞民惟邦本, 本固邦寧, 帝興王成, 未有不得民而能立邦家之基也. 得民有道, 仁之而已. 省徭役, 薄賦歛, 蠲其疾苦而便安之, 使民力有餘而其心油然而知后德之撫我, 則雖天不能使之變, 而況蠻夷盜賊水旱之作, 安能搖其本而輕動哉?

45) 다음해 5월에 禮部員外郎 겸 崇政殿設書, 國史院編修官, 實錄院檢討官에 임명되어 臨按으로 떠났다.

에 있어도 기념비적인 水利法規가 되었다.⁴⁶⁾ 또 임기를 마친 후, 중앙관직으로 옮기면서 孝宗에게 상소를 올려 丁錢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處州 백성들의 고통을 알려 旱傷路賦稅를 감면시켰다.⁴⁷⁾ 아울러 지방장관을 역임하면서 풍년 흉년을 가리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해지던 ‘곡물수매(和糶)’를 폐기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폐기령이 시행된 그해 關外 보리수확량이 거의 배가 되는 양이 증가하기도 하였다.⁴⁸⁾

이렇듯 범성대는 작품창작과 현실정치 양 방면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알리고 仁政을 베풀고자 했던 실천적 문인이었다. 그러나 30년 관직에 몸담으며 仁政을 위해 애쓴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년에 돌아온 전원에는 여전히 고통의 신음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采菱辛苦廢犁鉏,	쟁기·호미 쓸 일 없어 온갖 고생하며 마름 캐니
血指流丹鬼質枯.	손가락에선 붉은 피가 흐르고 몰골은 초췌하여 귀신같네.
無力買田聊種水,	논밭 살 돈 없어 잠시 마름 키웠더니
近來湖面亦收租.	요사이엔 호수에서도 조세를 받아간다네.

— <夏日田園雜興> 其11

시간은 그에게 삶의 용기를 주었고, 여민동락의 이상을 품게 했지만, 정작 현실의 시간에는 또한 호수에조차 조세를 매기는 어처구니없는 暴政이 횡행하고 있었다. 생의 종착역으로 선택한 전원은 어느새 자신의 이상과는 사뭇 다른 냉혹한 현실에 신음 중이었던 것이다.⁴⁹⁾ 그는 부단히 상소를 올렸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조정이 아니라 지방관의 탐욕이었고⁵⁰⁾ 이에 대해서는 의지의 한계를 절감한다. 결국 절망의 벽에 부딪힌 그는 정해진 세금 외에 더는 곡식을

46) 于北山, 《范成大年譜》(上海古籍出版社, 1987), 114쪽~121쪽 참조.

47) 《宋史全文》 권25 下, <宋孝宗四>: 范成大言, 處州丁錢太重, 遂有不舉子之風. 有一家數丁者, 當重與減免.

48) 줄져, 《범성대의 전원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97쪽 참조.

49) 가을이 되면 농민들은 관리들의 세금수탈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한 현실은 <秋日田園雜興> 12수 중 1/4인 3수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50) <秋日田園雜興> 其10: 黃紙蠲租白紙催, 皂衣旁午下鄉來. 長官頭腦冬烘甚, 乞汝青錢買酒廻.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원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⁵¹⁾

그러는 한 편 그는 농민들의 생생한 풍속의 세계에 하루하루 빠져든다. 그의 시속에 등장하는 석호 사람들은 보리 수확에 환호하며 익어가는 벼 이삭에 가슴벅차하고,⁵²⁾ 세금독촉의 압박에 옷감을 짜려고 밤을 지새우면서도 뽕 농사가 잘되어 식구들 여름옷을 해줄 수 있음에 기뻐한다.⁵³⁾ 그들은 그저 날 밝을 때까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도리깨 소리에 웃으며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는 욕심 없는 천진한 사람들이다.⁵⁴⁾ 이상과 괴리된 현실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노년의 범성대 눈에 비친 이상적인 전원은 현재에 충실하며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공간이었다. 장정들은 밭일을 하고 아낙들은 김짚하고, 농사일 모르는 어린 손주들은 할아버지로부터 박 심는 것 배우며,⁵⁵⁾ 하루하루 자연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에 절로 콧노래를 부르는, 농민들의 미소가 있고 삶의 여유로움이 있어 풍성해 보이는 전원이었다.

村巷冬年見俗情,
鄰翁講禮拜柴荊.
長衫布縷如霜雪,
云是家機自織成.

겨울되면 마을에선 인정이 넘쳐나니
이웃집 할아버지 예절 강학에 나뭇단을 드리네.
長衫은 눈서리 마냥 하얀데
“이 옷은 집에서 직접 짠 것이라오” 말하시네.

— <冬日田園雜興> 其12

범성대는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 새로 지은 옷을 사랑하는 이웃 노인의 웃음을 지켜보며, 출세와 부귀에 대한 욕심 없이 대지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농민들의 소박한 삶이 살아 숨 쉬는 현실을 목도하고 체험했다. 그 속에서 그는 농민들과 함께하며 이상인 仁義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51) <秋日田園雜興> 其5: 垂成穡事苦艱難, 忌雨嫌風更怯寒, 賤訴天公休掠剩, 半償私債半輸官.
52) <夏日田園雜興> 其3: 二麥俱秋斗百錢, 田家喚作小豐年, 餅爐飯甑無飢色, 接到西風熟稻天.
53) <夏日田園雜興> 其5: 小婦連宵上絹機, 大耋催稅急於飛, 今年幸甚蠶桑熟, 留得黃絲織夏衣.
54) <秋日田園雜興> 其8: 新築場泥鏡面平, 家家打稻趁霜晴, 笑歌聲裏輕雷動, 一夜連枷響到明.
55) <夏日田園雜興> 其7: 書出耘田夜績麻, 村莊兒女各當家, 童孫未解供耕織, 也傍桑陰學種瓜.

과정에서 범성대는 농민들의 삶을 통해 시간에 대한 인식을 자연의 질서로부터 인간사회의 조화가 실현되는 현실의 이상향으로 전환시켰다.

4. 나오는 말

대상의 주관적인 거리와 그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거리에 틈새가 없을 때 시의 효능은 극대화된다. 그리고 이런 거리의 소멸은 시의 생동감이나 언어 미감을 극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감동을 낳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일년 열두 달 365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의 질량으로 다가오지만, 범성대가 살았던 전통 시대는 자연의 순환에 맞춰 살았기에 물리적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시간보다는 한 해 사계절의 변화가 더 중요한 농업사회였기에, 24절기에 맞춰 농사짓고 살다보면 어느새 한 해가 가곤 했다. 범성대는 《시경》의 <사월>에서 기원하여 악부인 <子夜四時歌>・<四時白紵歌>와 이상은의 <연대>・소식의 <사시가>로 이어지는 사시가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시 전원잡흥>을 완성했다. 그는 이 시들 속에서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 시간의 질서 속에서 영위되는 전원에서의 사계절 삶을 노래했다.

<사시전원잡흥>은 중국 고대 전원시의 집대성이라 평가받아 왔지만, 또한 연작시 형태로 된 사시가의 유형을 완성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시에는 오랜 병석에서 일어나 새롭게 삶의 의욕을 찾아가던 범성대의 생명 인식과 현실에 대한 공명이 담겨있다. 그는 땅과 하늘을 섬기며 농사를 짓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전원의 현재를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고자 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발을 딛고 있는 현재의 순간을 더 중시했다. 그는 오랜 관리생활을 통해 절실하게 느낀 仁政을 꿈꾸며, 惻隱之心과 羞惡之心을 가지고 仁義를 실현하는 세상을 시를 통해 구가하고자 했다. 시 속에서 계절의 변화로 상징되었던 시간은, 그에게는 전대의 시인들처럼 연정을 촉발

하는 감성적인 기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서민 삶의 풍속도 속에서 약동하며 구현되는 현재적이고 구체적인 일종의 에너지였다. <사시전 원잡흥>은 노년의 범성대 눈에 비친 전원의 즐거움이 묻어나는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 그림 속에는 전원의 생동감 넘치는 현실 속에서 그가 꿈꾸었던,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仁義를 실현해가는 인간들의 삶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 參考文獻 >

- 范成大, 《范石湖集》, 上海古籍出版社, 2006.
- 于北山, 《范成大年譜》, 上海古籍出版社, 1987.
- 周汝昌, 《范成大詩選》, 人民大學出版社, 1984.
- 湛之, 《楊萬里范成大資料彙編》, 中華書局, 1985.
- 郭茂倩, 《樂府詩集》, 中華書局, 1996.
-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遼寧大學出版社, 1993.
- 王鳳霞, <從詠農詩到<四時田園雜興>—讀范成大詩歌一得>, 《中國古代文學研究》, 2008.9.
- 錢鍾書, 《宋詩選注》, 人民文學出版社, 1988.
- 程千帆·吳新雷, 《兩宋文學史》, 上海古籍出版社, 1991.
- 許總, 《宋詩史》, 重慶出版社, 1992.
- 胡雲翼, 《宋詩研究》, 巴蜀書社, 1993.
- 梁小炎, <論范成大的痛苦內容與解脫方式>, 《文教資料》, 2007. 9.
- 鄺郴蘭, <論范成大田園詩的思想價值與審美意義>, 《湘南學院學報》 第27卷 第6期, 2006.12.
- 劉琦, <田園逸興與悲憫之音—范成大的田園詩及其對傳統田園詩的突破>, 《長春師範學院學報》 第18卷 第6期, 1999.11.
- 鍾東, <范成大<四時田園雜興>四題>, 《廣州師院學報》(社會科學版), 1996年 第1期.
- 周原, <<四時田園雜興>與蘇州的歲時民俗>, 《社科縱橫》 第19卷 第4期, 2004.8.
- 문관수, <南宋四大家的 전원시를 통해본 南宋의 농촌경제상>, 《中國學論叢》 제8집, 1999.

- 서용준, <《송시선주》가 논한 범성대 전원시의 의미에 대한 고찰>, 《중국문학이론》 제3집, 2003.
- 양은선, <李商隱 <燕臺詩>의 ‘환상성’>, 《중국학논총》 제26집, 2009.10.
- 윤석우, <李商隱初期詩研究>, 《중국어문학논집》 제61호, 2010.4.
- 김창환, 《도연명의 사상과 문학》, 을유문화사, 2009.
- 梁鍾國, 《宋代士大夫社會研究》, 三知院, 1996.
- 범성대 저, 서용준 역, 《四時田園雜興》, 지만지, 2008.
- 赤塚忠 외 저/ 조성을 역, 《中國思想概論》, 이론과 실천, 1994.
- 알라이다 아스만 저/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 존 킹 페어뱅크·멀 골드만 저/김형중·신성근 역, 《新中國史》, 까치, 2005.
- 피터 K. 볼 저/ 심의용 역, 《중국 지식인들과 정체성》, 북스토리, 2008.

<中文提要>

在韓國朝鮮時代, 士大夫文人愛寫“四時歌”, 這種“四時歌”的概念也為朝鮮文人所獨有。朝鮮文人根據這種概念進一步評析中國詩詞, 可是他們偏偏都未提及范成大的<四時田園雜興>。范成大晚年所作的<四時田園雜興>組詩, 堪稱中國古代田園詩的集大成之作, 並且也可以視為一組完整的“四時歌”形式的大作。本文根據朝鮮時期所形成的“四時歌”類型來分析范成大<四時田園雜興>, 揭示其中蘊含的范成大所持的三種時間觀念:

第一為時間的生命力。范成大因為長期患病, 所以能更深切地體會到時間對於他的生命意義。他歸隱的石湖莊園給他一股能恢復活力的勇氣, 故他在所有季節中格外重視生機勃勃、萬物復蘇的春天。第二為時間的現在性。他以現在性為時間的實質, 特別關注自己生活的此時此刻。他一邊崇拜天地並親手種田, 一邊把田園的現在時間和生活形象描寫得非常親切逼真。第三為時間所聯系的現實和理想。在生活中他渴望仁政, 並且認為現在的時間就是能實現政治理想的一個核心因素。他一直苦悶於如何使理想和現實協調起來, 而如此思考的結果, 就被表現為<四時田園雜興>之中詩人對田園生活的理想。<四時田園雜興>被描繪成爲一幅村老眼中的農家樂事圖, 而這村老眼中的田園就是扎根於現實生活, 能爲身心補充活力, 並能實現仁義的一片范成大所夢想的地方。

關鍵詞: 范成大、<四時田園雜興>、四詩歌、時間認識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7. 15.	2012. 7. 30.	2012. 8. 15.	2012. 8. 21.	2012. 8. 31.